보일러용 폐연료탱크를 가스절단기로 절단하던 중 폭발

재해개요

2017년 7월 22일(토) 부산광역시 00구 소재 00사업장에서 피해자가 가스절단기(LPG-산소)로 보일러용 폐연료탱크를 절단하던 중 보일러용 폐연료탱크가 폭발하면서 피해자가 화상을 입어 사망한 재해임

재해 관련 사진

재해발생 상황도

재해 발생 원인

- 보일러용 폐연료탱크에 잔류한 인화성 액체(등유)의 유증기를 안전하게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절단 작업하는 등 안전작업절차 미준수
 - 등유의 유증기에 의한 화재, 폭발의 위험이 있었음에도 보일러용 폐연료탱크 내에 잔류한 유증기를 안전하게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스절단기로 보일러용 폐연료탱크 절단 작업을 실시함

동종재해 예방대책

- 보일러용 폐연료탱크에 잔류한 인화성 액체(등유)의 유증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 절단 작업 실시하는 등 안전작업절차 준수
 - 사업주는 위험물, 위험물 외의 인화성 유류 또는 인화성 고체가 있을 우려가 있는 배관·탱크 또는 드럼 등의 용기에 대하여 미리 위험물 외의 인화성 유류, 인화성 고체 또는 위험물을 제거하는 등 폭발이나 화재의 예방을 위한 조치(가스 제거, 세척, 불활성화 등)를 실시한 후 용접·용단 등을 실시하여야 함

관련: [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0조(유류 등이 있는 배관이나 용기의 용접 등)]